

ISSN 1229 - 6198

大韓醫療氣功學會誌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GI-GONG ACADEMY

VOL. 6. NO.1 2002

大韓醫療氣功學會

의료시장 개방에 앞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도하개발아젠다(DDA)의 협상일정에 따라 상대국과의 협상을 거쳐 3년 후인 2005년에는 의료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문제가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6월말까지 외교통상부에 접수된 한방 의료분야에 대한 관계국의 개방요구안을 보면, 우리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이 중의사 면허의 인정, 한의원등의 영업허용과 교육 법률 분야의 시장개방을 요구해왔고 미국은 병원설립제한의 완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밖에 10개국이 의료, 법률, 교육, 금융, 유통 등 12개 서비스분야의 시장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한방 의료분야의 시장개방에 대비해야할 우리의 당면과제로는 중국 중의학의 세계시장 석권을 방지하며, 그들과 대등하게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밀어닥칠 중의학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으면서 한의학술 분야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학술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임상 분야에서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연구결과가 학회지를 통해서 발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중의학과 차별되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한국의 전통의학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한의료기공학회의 한국의 전통의료기공에 대한 연구와 임상응용의 노력은 대단히 귀중하며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 WTO체제의 의료시장 개방에서도 굳건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한의료기공학회의 이러한 노력이 올해로 벌써 6번째의 학회지로 나타가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한의학 발전에 대한 노고에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학회 회원들이 바쁜 와중에도 귀한 연구 결과를 엮어 학회지를 펴내게 된 것을 치하드리고 한의학 발전에 노력하는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참신하고 귀중한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기를 기대하며 학회와 회원 여러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2. 11

大韓韓醫師協會 會長 안재규

한의학의 대중화에 발맞춰

뜨거운 여름, 온 국민이 하나 되었던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는 온 국민들의 가슴에 自信感과 矜持를 심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한의계에도 커다란 성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중보건한의사의 확대 배치입니다. 그동안 충분한 자격이 되었음에도 소수의 인원만이 보건소에서 의료 혜택을 전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의 법률안 통과에 따른 공중보건한의사의 확대 배치를 통해 우리의 韓醫學이 국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韓醫學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고 이를 펼칠 수 있는 터가 준비된 지금, 우리 韓醫學界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한의학은 ‘氣’의 학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이러한 ‘氣’에 관한 수련과 연구가 절실합니다. 즉, 안으로는 기공의 수련을 통하여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고, 이를 환자의 치료에까지 폭넓게 응용하며, 밖으로는 이를 현대의 자연과학적인 언어로 풀어내어서 설명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大韓醫療氣功學會誌”의 6號 발간에 뜻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氣功醫學會 여러분들의 醫療氣功에 대한 더욱 깊은 연구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된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를 바라며 學會의 무궁한 發展을 祈願합니다.

2002. 11

大韓韓醫學會 會長 이원철

한의학의 세계화가 필요한 때

월드컵이 있어 즐거웠던 여름이 지나 收斂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大韓醫療氣功學會도 올 한해의 결실을 모아 여섯 번째 學會誌를 발간합니다.

올 한해는 월드컵을 계기로 大韓民國의 國際的 位相이 한단계 높아졌던 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大韓民國이 세계로 뻗어 나갈수록 더더욱 우리 자신의 傳統을 찾아 나가고 이를 현대화 시키는 작업이 중요해 지리라 봅니다. 이러한 傳統의 중심에 韓醫學이 서 있지만 아직도 국민의 생활속에 하나의 중심으로 우뚝 서 있지는 못한 형편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韓醫學의 발전과 이를 가능케 하는 기반으로서의 氣功學의 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氣功學의 발전이란 참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개인으로서의 修養은 기본적인 필수이며 사회적 차원에서의 발전을 위해서는 學問的 勞力 및 文化制度的 뒷받침까지 필요합니다. 멀리 내다보면 참으로 힘겨운 과정이지만 그러기에 지금 여기에서 한발자욱의 노력이 더욱 소중한 것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원고를 내어 주신 여러 회원분들과 學會誌의 발간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會員 여러분과 學會, 氣功學의 無窮한 發展을 기원합니다.

2002. 11

大韓醫療氣功學會 會長 김 기 옥

目 次

■ 激勵辭

- 의료시장 개방에 앞서 : 大韓韓醫師協會 會長 안 제 규
한의학의 대중화에 발맞춰 : 大韓韓醫學會 會長 이 원 철

■ 發刊辭

- 한의학의 세계화가 필요한 때 : 大韓醫療氣功學會 會長 김 기 옥

■ 論文

- 韓國 氣功 團體의 現況
최은경 · 박승정 · 이기남 1
- 丹田과 차크라(chakra)에 대한 문헌적 비교 연구
한원주 · 이재홍 · 양희숙 · 유영수 50
- 《靈樞·本藏篇》에 나타난 毛髮과 三焦·膀胱과의 關係에 관한 考察
강한주 · 조홍윤 75
- 포박자의 양생사상에 관한 고찰
이계승 · 이재홍 92
- 腹診의 醫史學的 考察
김정환 · 박승정 · 손희천 · 이기남 111
- 睡眠 養生에 대하여
김훈수 · 박령준 · 정헌영 128
- 經脈脈診法인 十二經脈脈診, 三部九候診, 人迎氣口診의 寸口脈으로의 演變에 관한 研究
임한제 · 윤중화 150
- 産後調理院의 問題點과 法製化 方向 및 管理指針에 대한 考察
정우석 · 유심근 · 조홍윤 181

- [부록] 기공요법 보험급여 심사평가 보완자료
- 大韓韓醫學會 회칙
- 대한의료기공학회 명단 및 주소록
- 학회지 논문 투고 규정
- 논문 작성법